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채수염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숱은 그리 많지 않으나 퍽 길게 드리운 수염.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채수염'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숱은 그리 많지 않으나 퍽 길게 드리운 수염.

채수염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채수염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치슈염 사전 표기 요약	—	—	—	—	—	●→
채수염 사전 표기 요약	—	—	—	—	—	●→
채슈염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치슈염
  20세기
- 채수염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ᄎᆡ슈염, 채슈염, 채수염

채수염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채수염'의 옛말인 'ᄎᆡ슈염'은 20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ᄎᆡ슈염'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따위가 길게 늘어진 것을 뜻하는 'ᄎᆡ'와 한자어 '鬚髯'을 한글로 표기한 '슈염'이 결합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ㆍ'도 'ㅐ'로 변하면서 '채슈염'도 나타나고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채수염'도 나타난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쓰이는 여러 형태 중 '채수염'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채수염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ᄎᆡ슈염, 채슈염, 채수염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ᄎᆡ슈염, 채슈염, 채수염

출처 1912 구의산 하:22

용례 01

문헌 용례

당초에 집에셔 써날 때에 져의 어머니에게 져의 조부 모습을 무러 눈이 어글어글ᄒᆞ고 얼골이 길음ᄒᆞᆫᄃᆡ 코가 웃둑ᄒᆞ고 니마ᄂᆞᆫ ᄃᆡ머리진 듯ᄒᆞᆫᄃᆡ 수염은 ᄎᆡ슈염이 흿득흿득 ᄉᆡ고 키ᄂᆞᆫ 즁키에 음셩이 울엉차다ᄂᆞᆫ 이약이ᄅᆞᆯ 력력히 듯고.

현대어 풀이

당초에 집에서 떠날 때에 저의 어머니에게 저의 조부 모습을 물어 눈이 어글어글하고 얼굴이 기름한데 코가 우뚝하고 이마는 대머리진 듯하며 수염은 채수염이 희뜩희뜩 세고 키는 중키에 음성이 우렁차다는 이야기를 역력히 듣고.

출처 1915 신자전 1:17ㄴ

용례 02

문헌 용례

偲 채, 시 굿셀 ○채슈염 날.

현대어 풀이

채, 시 굳셀, 채수염 날.

출처 1922 고목화 42ㄱ

용례 03

문헌 용례

올에 셜은 몃치신지 ᄌᆞ셰ᄂᆞᆫ 몰나도 마흔은 못 되셧고 신수가 죠흐시지오 얼골은 길음ᄒᆞ고 눈은 어글어글 ᄒᆞ고 살빗이 옥 갓고 ᄎᆡ슈염이 ᄂᆞ셧ᄂᆞᆫᄃᆡ 키가 즁키ᄂᆞᆫ 되시지오.

현대어 풀이

올에 서른 몇이신지 자세히는 몰라도 마흔은 못 되셨고 신수가 좋으시지요 얼굴은 기름하고 눈은 어글어글하고 살빛이 옥 같고 채수염이 났는데 키가 중키는 되시지요.

출처 1928 조선일보 12월14일 5면

용례 04

문헌 용례

도집강이 『이놈 그래도 무슨 잔소리야』 호덩하고 아무개를 불러라 멍석을 말어드려라 매를 해오너라 채수염을 흔들며 야단치기 시작하얏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조선일보 1월 11일 4면

용례 05

문헌 용례

그는 백공작 꼬리 가튼 채수염을 느리고 지르르 흐르는 비단옷에 번질번실하는 탕건을 썻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동아일보 2월 11일 4면

용례 06

문헌 용례

그것은 하감역의 탐스러운 허미수(許眉叟) 수염을 방불하게 하는 채수염과 풍채 조흔 기품이 더욱 점잔어 보이게 하엿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채수염 관련 낱말

수염

채수염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채수염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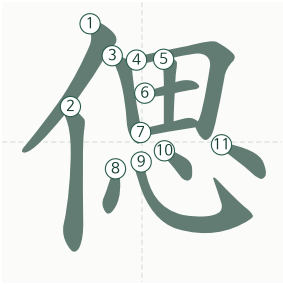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偲 뜻·음 힘쓸 시

총 11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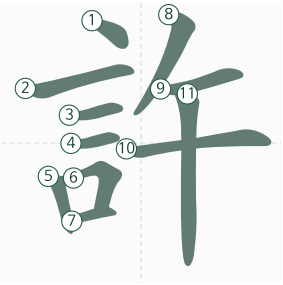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偲/

許 뜻·음 허락할 허

총 11획 · 부수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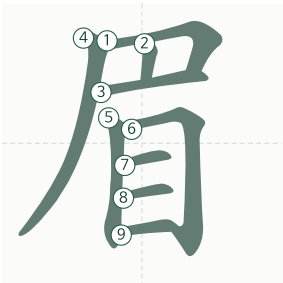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許/

眉 뜻·음 눈썹 미

총 9획 · 부수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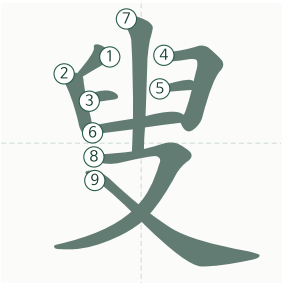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眉/

叟 뜻·음 늙은이 수

총 9획 · 부수 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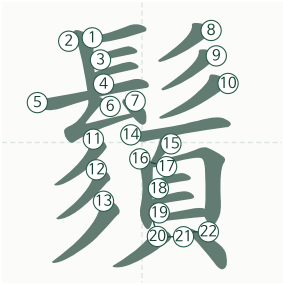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叟/

鬚 뜻·음 수염 수

총 22획 · 부수 髟





hanja.wordrow.kr/한자/鬚/

髯 뜻·음 구레나룻 염

총 14획 · 부수 髟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髯/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髟.